

한나라당 마지막 정책토론회 뜨거운 공방

이-박 '대운하·고교 평준화' 맞짱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나라당 4차 정책토론회는 마지막 토론회답게 예비 후보 간의 불꽃 튀는 난타전이 이어졌다.

우선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정책토론회에서 보여왔던 느슨한 태도가 최근의 지지를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고교 평준화 16개 시·도별 자율 결정권 부여' 공약은 자율성보다 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고 공격했다.

반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 이 후보는 "박 후보는 대운하 공약에 대해 '국민 사기극'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썼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찬성했을 것"이라며 "반대만 하지 말고 낙동강 수질 오염 해결책을 말해보라"고 힐난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도 "이 전 시장이 대운하 공약에 대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대운하를 하면

이 "박정희라면 찬성" vs 박 "아버지도 검토 후 폐지"

홍-박 '시멘트 지지율' 설전...추격 3인방 '빅2' 맹공

수질이 개선된다 했는데 오염 문제가 제기되니 이중수로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번에는 강변여과방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측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서로 말을 자르는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감정 대립마저 표출했다.

원희룡, 홍준표, 고진화 후보는 이전 3차례의 토론회보다 강도를 높여 '빅 2'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다.

고진화 후보는 박 전 대표의 이념 성향을 비판한 뒤 박 후보의 출구세 공약에 대해 '개발시대 패러다임은 구시대의 막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이 후보에게도 "대운하 공약은 버려야 할 국가경쟁 모델에 기초한 것이며 당장 철회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 후보를 상대로 "30년간 기업 하셨던 분이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사셨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며 "물류개선을 위해서는 경부선 복원화가 대운하보다 훨씬 낫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박 후보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향수 증인 '시멘트 표' 21~25%를 갖고 있지만 외연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후보는 "상류층이 부동산과 학벌을 대물림하는 현실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으며 "대처리즘은 실패로 끝난 실험이었다"며 박 후보를 몰아세웠다.

한편,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정책토론회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한나라당의 정책 토론회는 과열 경선에 따른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가 부각되면서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토론회의 특성을 따져보면 박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남는 장사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완만한 지지를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반면, 이전 시장은 지지를 1위라는 점에서 타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쏟아졌다는 점도 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토론회에서 자신의 강점인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원희룡, 홍준표, 고진화 의원 등 이른바 '추격 3인방'도 4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07 한나라당 집권비전 선포대회'에서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박 네거티브 검증공방 수위 넘었다"

한나라당 지도부 양 캠프에 최후 통첩

한나라당 지도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간의 검증공방에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강제섭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검증 공방에 대한 당내의 우려가 비난으로 돌변하고 있으며, 경관교체의 희망마저 앓아가고 있다"며 "인내도 한계가 있으며, 필요하면 음침마속도 주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당의 검증의지를 시험해선 안된다"며 "윤리위와 네거티브 감시위 등 검증용 둘러싼 여러 기구가 총출동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불가피할 경우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강 대표는 전날도 "금주 월요일(25일) 소주잔을 부딪치며 화합을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날 양 캠프의 이야기는 또 달랐다. 하루 만에 이렇 수 있느냐"면서 "한계에 도달해 당 지도부가 준엄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때 가서 지도부를 원망하지 말라"며 필요하면 '레드카드'도 꺼내들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

중'에 출연해 "당내 경선 상황이 우려와 걱정을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곧 윤리위를 소집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양 캠프간 공격이 이미 같은 당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를 넘어, '출당시켜야 조용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강 대표의 이를 연속 강경 발언을 필두로 지도부의 잇단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윤리위에 서 출당 등 엄격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준수 및 대선중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소속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준수 및 수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은 선거법위반을 반복하고 심

한나라당 '대통령 대선 중립 촉구' 결의안 제출

지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해 사인(私人)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헌법과 선거법 준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어 "노 대통령의 헌법 및 선거법위반은 중립적 대선감독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17대 대선을 공명하게 치르

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 준수와 공정한 선거관리가 관건인만큼 노 대통령에게 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로 회부돼 심사를 거쳐 예정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안전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현대백화점 · 광주점

「빈폴 / 폴로」 시즌OFF

기간 : 6/29(금)~7/17(화), 일부품목 제외

30% 빈폴진 2층 / 빈폴레이디스 3층 / 빈폴 6층 / 폴로 5층 / 빈폴골프 6층 / 빈폴키즈 7층	
빈폴 5층	
남방	82,000원 → 57,400원
반바지	89,000원 → 62,300원
폴로 5층	
반바지	88,000원 → 61,600원
엔티	89,000원 → 62,300원
빈폴레이디스 3층	
남방	95,000원 → 66,500원
빈폴골프 6층	
바지	188,000원 → 131,600원
빈폴키즈 7층	
원피스	98,000원 → 68,600원
빈폴진 50% 특가 상품전 2층 (6/25~7/1)	
엔티	31,000원
남방	59,500원
반바지	74,500원

6/29(금)~7/1(일)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7/2(월) 정상영업